

보도시점 2025. 4. 1.(화) 12:00 / 배포 2025. 4. 1.(화) 08:30
< 4. 2.(수) 조간 >

(주)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 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 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 5.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 (이하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3. 6.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주)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주)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주)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 6. 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 7. 5.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 7. 14.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주)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주)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주)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① 관련 5개 사에 대한 (주)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②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하였으며, ③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주)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주)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주)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신사업하도급조사팀	책임자	팀 장	장주연 (044-200-4593)
		담당자	사무관	권태균 (044-200-4596)

1

법 위반 내용

- (행위사실) (주)디디비코리아는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와 관련하여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 5.경 및 2023. 6.경 기준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이하 ‘관련 5개 사’라 한다) 및 자신에게 각각 42억 8,120만 원과 10억 원, 총 52억 8,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다.

* 실제로 이 사건 용역 위탁 관련 하도급 계약은 A사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 7. 5.에 체결됨

< (주)디디비코리아가 A사에게 대량거래를 암시하는 이메일 >

안녕하세요 이사님

양사 올 한해 여러가지로 협력하는 일이 많아지네요^^

금번 저희가 요청드리는 C사 의 D게임 의 캠페인 진행에 필요한 입찰 증거금에 대해 확인드리는 바이며, 캠페인 금액은 80억 이상으로 업체 선정 및 청구(6월 23일 이전) 이후 영업 일 7일 이내

반환 예정입니다. 최종 요청 금액은 별도 메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금지급요구) (주)디디비코리아는 아래와 같이 A사에게 총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금전 지급이 이루어졌다.
- (관련 5개 사, 42억 8,120만 원) 2023. 5월 경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5개 사에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고, A사는 2023. 5. 26. ~ 6. 15.까지 총 42억 8,120만 원을 관련 5개 사에게 지급하였다.
- (주)디디비코리아, 10억 원) 2023. 6월 경 A사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A사는 2023. 6. 9.에 3억 원, 2023. 6. 14.에 7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 (하도급계약체결) A사의 (주)디디비코리아 및 관련 5개 사에 대한 금전 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 6. 27.에 비로소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용역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 약 일주일 후인 2023. 7. 5.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용역대금청구계약을 체결하였다.

< 용역대금청구계약서 中 >

제 4 조 (대금의 청구와 지급)	
1) (대금)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 대금은 5,680,000,000원(일금 오십육억팔천만원 정)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2) (청구) '을'은 '갑'에게 2023년 7월 14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3) (지급) '갑'은 '을'에게 2023년 7월 14일까지 제4조 제1항의 청구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 (금전미반환) (주)디디비코리아는 수차례 위 금전의 반환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주)디디비코리아는 2023. 6. 19. 위 10억 원에 대하여 2023. 6. 3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10억 원 반환 약정서'를 발급하고, 이후 2023. 7. 5. A사에게 2023. 7. 14.까지 위 52억 8,1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2억 8,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대금청구계약서'를 체결 하였으며, 그 외에도 수차례 이메일 등을 통해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10억 원 반환 약정서 >

<p>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C사 캠페인 관련하여 디디비코리아의 법인 계좌로 입금한 1,000,000,000 원 (일금 일십억원) 을 2023년 6월 30일 이내에 귀사의 법인 계좌로 반환을 약속 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p>
--

- 특히, (주)디디비코리아는 디디비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초 내부감사는 (주)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52억 8,120만 원 제공 요구 이전인 2023. 4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후 2023. 6. 5.부터 실제 감사가 시작되어 (주)디디비코리아가 10억 원 반환 약정서 및 용역대금청구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이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A사에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심인이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위법성 판단) (주)디디비코리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에 해당한다.

○ (경제적이익요구) (주)디디비코리아가 A사에게 총 52억 8,120만 원을 요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로 판단된다.

- (주)디디비코리아가 A사로 하여금 관련 5개 사에 지급하도록 한 42억 8,120만 원은 이 사건 용역 위탁 이전에 (주)디디비코리아가 관련 5개 사에 미지급하고 있던 대금의 지급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 한 사례로, (주)디디비코리아는 관련 5개 사 중 하나인 B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금을 A사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조건으로, B사가 (주)디디비코리아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로 B사는 2023. 6. 15. A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주)디디비코리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 처리하였다.

< B사가 A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

다.	A사	로부터 2023년 대금을 수령한 구체적인 사정
•	디디비코리아의 미수금 발생 : 2022년 말부터 발생한 미수금이 152,001,102원, 입금 날짜를 계속 미루어 B사에서 지체상금을 포함한 미수금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이에 디디비코리아는 관련 회사인 A사를 통해 지체상금을 포함한 미수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함	
•	A사에 지체상금 포함 공급가액 160,0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 받으면 디디비코리아에 발행한 미수금 세금계산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 받음	

* 출처: B사 제출자료

- (주)디디비코리아가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 10억 원은, 입찰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요구한 것인 점, 이 사건 발주자인 C사 및 (주)디디비코리아 본사 차원의 입찰보증금 요구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현재까지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디디비코리아가 자신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당한 사유)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주)디디비코리아의 금전요구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로 판단된다.
 - 첫째, (주)디디비코리아는 금전 요구 과정에서 A사와의 향후 거래가 80억 원의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실제로 금전제공이 완료된 이후에서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하도급거래 개시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로 인정된다.
 - 둘째, (주)디디비코리아가 발주자인 C사로부터 2022년 ~ 2023년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이 총 8억 3,400만 원에 불과한 것에 반해 수급사업자인 A사에 요구한 대금은 52억 8,120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조치 내용) (주)디디비코리아 및 (주)디디비코리아 대표이사 고발, 과징금 부과(5억 7,600만 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 거래상지위를 매개로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